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周邊環境與件

北傀의 對美日 接近試圖에 따른 問題点

研究執筆責任 金 達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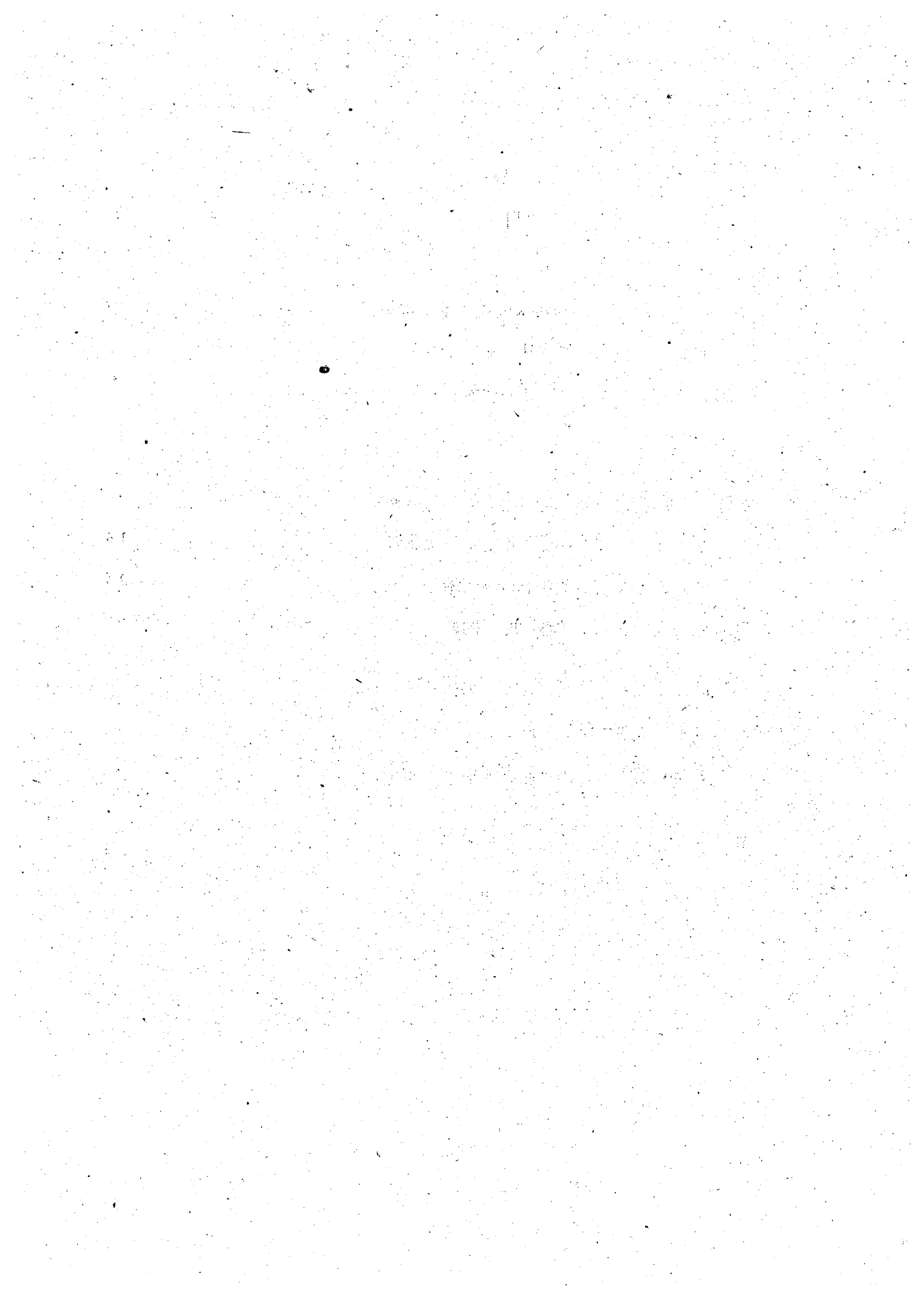
(略歷) 延世大-政治外交學科卒 (1961)
中國-國立-政治大學校-外交研究所卒
法學碩士 (1965)
美國-콜롬비아 洲立大學校 講師 (1971)
美國-辛델奇大學校 哲學博士 (1972)
外務部 外交研究院 研究委員 (1972)
延世大 政法大 教授 (1977~)

刊行責任 梁 在 燾 (政策企劃室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第 1 章 北傀의 对南基本政策 및 戰略	1
第 1 節 北傀对南政策의 基本目標	1
第 2 節 北傀의 对南軍事戰略	9
第 3 節 北傀의 对南外交戰略	11
第 2 章 北傀의 对美接近政策 및 戰略	16
第 1 節 北傀의 对美平和協定 提議背景	16
第 2 節 北傀의 对美平和協定締結 提議意圖	24
第 3 節 美国의 反心 및 問題点	27
第 3 章 北傀의 对日本接近政策 및 戰略	36
第 1 節 北傀—日本關係	36
第 2 節 最近 北傀—日本關係의 問題点	42
註	48



第1章 북괴의 對南基本政策 및 戰略

第1節 北傀對南政策의 基本目標

北傀의 對南政策 基本目標은 條件에 따라 上限目標와 下限目標로 設定되어 왔다. 卽 目標達成의 條件이 可能할때 上限目標로서 韓半島의 赤化統一이며, 條件이 불가능 혹은 성숙되어 있지 않을때 下限目標로서 北傀體制만의 유지를 目的으로하는 現狀維持가 되어 왔다.

北傀對南政策의 上限目標은 1961年 9月 15日 개정되어 채택된 朝鮮로동당 規約에 명시되어 있다. 同 規約 前文에 [朝鮮로동당의 當면 목적은 公화국 北半부에서 社會주의의 완전한 勝利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의 혁명 作業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公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註1)

北傀對南政策의 內容과 性格은 條件에 의하여 계속 변화되어 왔다. 條件의 地理的 領域은 첫째 北韓自體의 영역이며, 둘째는 韓國內의 영역이며, 셋째는 國際環境의 영역이다.

北傀는 그들 자신의 條件, 韓國內의 條件, 그리고 世界的인 國際條件의 상황에 따라 그들의 對南政策의 內容과 手段을 수정 혹은 변화시켜 왔다. 換言하면 北傀의 對南政策과 戰略의 座標 是 條件의 상황에 따라 可變的으로 설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北傀의 對南政策 및 戰略의 變化와의 상관관계를 實證的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第1段階

1945년부터 1950年 韓國戰 事件은 北傀로 하여금 戰爭方法에 의한 武力統一을 시도하게 하였다. 韓國은 당시 심각한 경제위기와 정치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國際的 事件은 北傀로 하여금 對南武力赤化統一方法을 채택할 수 있게 만든 충분한 여건이 있었다고 본다.

世界第2次大戰 終了後 韓國戰이 爆發할때 까지의 5年間 國際 政治의 성격은 美國과 蘇聯의 協力關係가 완전히 붕괴되고 敵對化되었던 시기라고 성격지어질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共產主義勢力이 西方自由陣營勢力을 압도하면서 강력히 국제정치에 부각되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蘇聯은 歐州에서 [발틱] 3個國을 합병하고, 東歐諸國과 [핀란드]에 대한 통제를 완료했고 [오스트리아]와 西方戰勝國家들간의 평화 조약체결을 방해하고, 獨逸分斷을 통해 東獨政府 (German Democratic Republic)을 수립했고, [베르린] 危機를 조성했었다. 뿐만 아니라 蘇聯은 1949年 여름 원자폭탄실험에 성공하였다.

同年에 中國大陸에서 國民 政府의 패배와 中華人民共和國政府의 수립을 보게 되었으며 1950年 2月 蘇聯·中共軍事同盟이 成立되었던 것이다.

1950年代 初半에 이르러 美国은 中国大陸에서의 中共勝利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中共과의 外交關係 樹立段階에 까지 이르게 되면서 台湾의 自由中国에 대한 軍事援助의 중단까지도 發表했든 것이다.

世界的인 經濟狀況에 있어서도 戰後 美国經濟의 위축으로 인하여 西欧諸国에서는 화폐평가절하를 실시하고 급증하는 실업문제로 인하여 통화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美国과 西欧諸国은 심각한 經濟危機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시에 西方國家間에 무역량이 격감되고 이로써 西欧의 生活水準이 현격히 저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國際情勢의 여건으로부터 北傀指導者들은 社會主義 勝利의 不可避性을 認識하고 신분하게 되었든 것이다.

同時에 美国의 對韓國政策의 變化와 이에따라 1949年 여름에 실시완료된 駐韓美軍撤収 및 韓國이 西太平洋에 있어서 美国防衛線에서 除外된다는 1950年 1月 [에치슨] 美國務長官의 發言등은 北傀指導者들에게 對南武力統一政策을 결정채택하게 만든 國際的 与件들이었다고 본다. 註2)

(2) 第2段階

1953年 7月 韓國戰 終了와 休戰協定締結이후 1960年 4.19革命 發生이전까지 약 7年間 北傀의 對南政策은 平和共存을 지양하면서 北傀自體의 體制維持에 주력했던 時期였다. 이 시기에 北傀의 對南政策의 基調는 1954年 4月 [제네바] 會議에서 北傀가 제시

한 韓半島 統一方案內容에 명백히 부각되어 있다. 註3) 즉 中立國
감시하의 총선거, 남북교류, 및 외군철수로서 대략 요약될 수 있다.

北僞가 이러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주장하게 된 동기는 첫째
北僞自体内의 여건으로서 戰爭 피해의 시급한 복구필요성과 둘째
韓國이 [北進統一]을 公式政策으로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北僞
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했으며, 세계 中共軍은 1955
년까지 철수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반면(그러나 實際 中共軍이
철수한 것은 1958年이었다). 美軍은 계속 한국에 주둔할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北僞는 北僞自体的 体制
維持를 위하여 [平和的] 統一政策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判斷된다.

(3) 第3 段階

1960年 4月 19日 이후부터 1961年 5月 16日 軍事革命까지
약 1年間 北僞의 對南政策 및 戰略은 다시 적극성을 띠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政策 및 戰略變化 역시 與件의 變化에 기인하고
있다. 그동안 北僞自体的 經濟的 복구와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北
僞는 다시 對南戰略을 강화 추진시킬 수 있는 自体力量을 가지게
되었음은 물론 이 時期에 발생한 韓國의 여건 변화는 北僞의 對
南政策 강화를 더욱 자극했던 것으로 본다. 즉 4.19 學生革命으
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이에 따라 韓國의 國內政治面에서 혼돈
된 상황을 이용하여 北僞는 더욱 적극적인 對南政策을 추진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北僞戰略의 變化는 1960年 8月 15日 光復15周年
경축대회에서 행한 金一成 연설에서 그 윤곽이 나타났다.

김일성이 제안한 내용의 핵심은 ① 外勢干涉의 배제 ② 南北代表
會議, ③ 南北聯邦制案, ④ 南北韓 經濟, 科學, 文化, 藝術, 및 體育의
상호교류, 그리고 ⑤ 美軍撤収 및 南北韓 軍隊 10萬 또는 그 이
하로의 감군으로 요약되고 있다. 註4)

(4) 第4段階

1961年 5月 16日 軍事革命 이후로부터 強大國 긴장완화가 구
체화 되기 시작하는 1969년에 이르기 까지 8年間 北僞의 對南
政策과 戰略은 매우 好戰的이며 적극적인 性格을 내포하고 있었다
고 분석된다.

이 時期에 있어서 北僞對南戰略은 그 이전의 對南戰略과 비교할
때 중요한 相異點을 發見할 수 있다. 即, 1961年 이전에는 여
전에 따라 政策 및 戰略을 設定했으나 1961年 이후부터는 北僞
의 對南基本目標인 赤化統一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유리하게 작용하
게 될 여건을 먼저 조성하려는 戰略으로 일보전진된 적극성을 띠
게 되었다.

南韓에서 北僞基本目標達成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수립된 戰
略은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으로서 1961年 9月 11日 조선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행한 김일성 연설에서 구체화 되었다. 즉, 三段
階革命理論으로서 첫째, 韓國內 各계各층 인민들로 하여금 마르크스
레닌主義를 지도이념으로하는 혁명적 당을 조직하고, 둘째 이들을
주역으로하여 駐韓美軍을 철수시키게 하고, 셋째 北僞는 이들과 최
종단계에서 統合을 통하여 南北統一을 이룩하려는 戰略이다.

同時에 北僞는 1962年 12月 16日 노동당 中央委員會 全員
會議에서 北僞自體의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즉 北僞軍事力을 강화
하기 위한 즉 北僞軍事力을 강화하기 위한 「四大軍事路線」을 채
택하게 되었다. 註5) 즉, 「四大軍事路線」이란 ① 全軍의 幹部化,
② 裝備의 現代化, ③ 全人民의 武裝化, 및 ④ 全國土의 要塞化이다.

北僞는 그들의 基本政策目標인 赤化統一을 위한 与件造成 戰略
은 1964年 2月 27日 노동당 中央委員會 第4期 第8次 全員
會議에서 이른바 「三大革命路線」이란 혁명전략을 채택하게 됨으로
써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즉 「三大革命路線」이란
① 北僞內의 革命力量強化, ② 南韓에서의 革命力量強化, 그리고 ③ 國
際的 革命力量強化를 의미한다.

第4段階期間中 전개되었던 北僞의 對南韓 政策은 1967年과
1968年 兩년에 걸쳐 一連의 對南武力挑發로 나타났다.

이 期間中 휴전선에서의 도발과 對南「게릴라」部隊의 침투가 격
증하였다. 1968年 1月 21日에 發生한 北僞武裝「게릴라」의
청와대 기습사건, 同年 1月 23日 美海軍「푸에블로」号 납치사건.

同年 11 月에 있었던 울진에서의 대규모 「게릴라」 上陸事件, 그리고 1969 年 4 月 15 日 美空軍 EC-121 機 격추사건등은 이 時期에 있어서 北僞의 對南武力挑發 및 적극 強경정책을 實証하고 있는 事例들이다.

(5) 第 5 段階

1969 年 여름부터 1973 年 8 月까지 北僞의 對南政策은 南北會談으로 요약될 수 있다. 南北韓간의 正식접촉은 1971 年 9 月 20 日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南北赤十字會談의 豫備會談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1971 年 9 월에 이르기 까지 2 年間 北韓의 對南政策은 第 4 段階의 好戰的 폭력정책으로부터 점차 전환하여 美國과 韓國에 대하여도 점차 對話로의 온건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北僞對南政策의 變化에는 國際적으로 美中共間에 이루어진 화해접근 「무드」와^{註 6)} 北僞自體内部의 경제적 곤란^{註 7)} 그리고 韓國政府로부터 北僞에 대한 적극적인 對話모색의 여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註 8)} 1971 年 9 月 개최된 南北赤十字會談은 드디어 1972 年 봄부터 南北韓間의 비밀정 치회담으로 연결되고 同年 7 月 4 日 역사적인 南北共同聲明의 發表를 거쳐 南北對話 및 協商時期가 전개되었는 것이다.

(6) 第6段階

北傀가 南北會談을 一方的으로 중단선언한 1973年 8月 25日 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北傀의 對南政策은 南北不法 거부로 일 관되어오고 있으며 두드러지게 對南軍事戰略과 外交戰略을 강화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南北對話 斷絶이후부터 北傀가 추진하고 있는 軍事·外交戰略은 후속되는 절에서 분석되어 질 것이다.

그러나 第6段階에서의 北傀對南政策 및 戰略도 北傀指導者들이 認知하는 여건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現 北傀自体内 与件은 김 일성 후계자 문제를 위요한 권력투쟁과 北傀가 당면해 있는 經濟的 危機때문에 韓國과의 대화와 상호개방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 에 놓여있으며 남북교류에서 파생되는 南韓으로부터의 자유화 영향 을 봉쇄하고 김일성唯一體制의 강화 및 유지를 위하여 대화의 단 절은 필요 불가결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南北접촉개시이후 北傀指導者들에게 美証된 韓國의 經濟發展과 社 會 및 政治安定은 南北對話를 통한 韓國內 北傀同調 혁명세력의 부식이라는 당초의 北傀기대가 무산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973年 1月 「파리」에서 체결된 美一越盟간의 平和 條約과 그후 월남과 東南亞로부터의 美軍撤収와 亞細亞로부터 전반 적인 美軍撤収를 이행하려는 美國의 새로운 아시아政策은 北傀指導 者들에게 그들의 對南政策과 戰略을 수정할 必要性을 인식하게 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6段階에 이르기까지 北僞의 對南基本政策目標은 上限目標로서 韓半島赤化統一이며 下限目標로서 北韓体制의 維持이었다.

이러한 基本目標達成을 위한 對南戰略은 北僞自體内部의 여건, 韓國의 여건, 그리고 國際的 여건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변화되어 왔던 것이다.

目標의 核心은 힘이다. 北僞指導者들의 개념에 의하면 여건은 곧 力量을 의미한다. 北僞의 對南基本政策目標 達成을 위하여 北僞는 力量, 즉 힘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北僞指導者들에 있어서 힘은 곧 革命力量이며 革命力量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방침이 「三大革命路線」으로 표현되고 있음은 이미 지적된바와 같다.

第2節 北僞의 對南軍事戰略

北僞對南軍事戰略의 戰略目標은 北僞軍이 韓國軍에 비하여 上位的 軍事力量을 유지하는데 있어 왔다. 이러한 군사전략은 1962年 12月 이후 ① 全人民의 武裝化, ② 全國土의 要塞化, ③ 全軍의 간부화, 및 ④ 軍裝備의 現代化로 요약된 「四大軍事路線」에 입각하여 추진되어 오고 있다.

「四大軍事路線」에 입각하여 北僞軍의 上位的 군사우위를 목표로 하는 戰略的 意圖란 北僞의 单独戰 수행능력의 강화에 있어 왔다.

北傀의 戰略概念은 第1線 전방에서 이루어지는 正規戰爭과 後方 第2線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非正規 「게릴라」戰을 다 같이 의미하고 있다. 동시에 軍事戰略面에서 기습신제공격과 속전단기 공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軍事戰略的 意圖는 北傀가 그동안 증강시켜온 공격무기와 화력장비등을 분석해 볼때 이러한 전략의도로 분석되어지는 것이다.

北傀의 對南軍事戰略의 實際 이행시기와 조건은 군사적 측면에서 ① 駐韓美軍撤収가 이루어진 다음이나, ② 駐韓美軍撤収이후 韓半島에서 再次 武力紛爭이 發生했을 때 美軍介入이 不可能하다고 판단했을 때나, ③ 韓國의 軍事的 防衛體制가 弱화되었을 時期와 條件이라고 볼 수 있다. 政治的 側面에서 보면, 韓國內 革命이 發生하든지 기타의 政治不安定으로 政治指導力이 弱화된 상태에서 社會가 不安定한 時期와 條件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北傀指導者들은 政治的 側面에서 韓國內의 狀況을 강력한 지도력하에 고도의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생활향상을 누리며 社會安定을 유지하고 있고 北傀가 기대하는 방향으로의 國內 革命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反面에 北傀指導者들은 軍事的인 側面에서 駐韓美軍의 撤収와 韓半島 紛爭 再發時 美國의 再介入을 저지시키는 것과 韓美防衛體制를 弱화시키고 그러므로서 韓國自体 防衛體制를 弱화

시키고 그러므로서 韓國自体 防衛体制를 약화시키는 일은 北傀의 軍事外交戰略의 전개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질 수 있다.

北傀는 현재 이렇게 駐韓美軍을 철수시키고 未來의 韓半島紛爭에 대한 美軍의 介入을 저지시키고 또한 韓國의 防衛体制를 약화시키는 것을 그들의 對南外交戰略과 戰術을 통하여 이행하고자 努力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73年 8月 28日 北傀에 의한 一方的인 南北會談斷絶도 이러한 戰略의 일환이며, 남북대화 단절 이후 이러한 外交戰略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駐韓美軍撤収와 美國의 韓半島紛爭 介入의 저지, 그리고 韓國의 軍事的 防衛体制의 약화를 시도해 오고 있는 것이다.

第3節 北傀의 對南外交戰略

北傀의 對南外交戰略은 첫째 軍事性格的인 側面과 政治外交性格的인 側面에서 分析되어 질 수 있다.

먼저 軍事性格的인 側面에서 볼 때 北傀의 對南外交戰略 目的은 北傀軍事力 強化를 위한 外交戰略으로 평가된다. 즉 北傀는 中共 및 蘇聯과 1961年에 각각 체결한 軍事同盟을^{註9)} 계속 有効하게 지속 유지시키기 위한 外交努力을 경주함과 동시에 中共과 蘇聯으로부터 최신 軍장비의 지원을 계속 확보하려는 外交戰略으로 요약되어 질 수 있다.

軍事性格的인 側面에서 분석되어 질 수 있는 또하나의 北傀 對南外交戰略目的은 韓國의 軍事力과 韓國防衛体制의 弱화를 위한 外交戰略이다. 이러한 外交戰略은 구체적으로 主한미군 철수와 韓半島紛争에 대한 美國의 介入을 저지시키고 韓國의 防衛体制를 弱화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北傀의 對南外交戰略의 目標達成을 위하여 1973年 8月 이후 北傀는 다양한 戰術을 이행해 오고 있다. 첫째 駐韓美軍 撤収를 위하여 위장평화공세를 취하기도 하며, 「유엔」총회에서 北傀側主張을 지지하는 共產側 決議案 通過와 對美平和協締結을 제 의해 오고 있는 것이다.

1973年 第28次 및 1974年 第29次 「유엔」總회에 대한 北傀戰略을 分析해보면, 第28次 總회에서 共產側은 ① UNCURK 解体 ② U N 旗 使用權利를 取消하고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할 것과, ③ 모든 外國軍을 撤収할 것을 주장하고, 第29次 總회에서 ① U N 깃발아래의 모든 外國軍隊를 撤収해야 하며, ② 撤収方法은 關係國間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註10)

第29次 「유엔」總회 共產側 決議案中 外軍撤収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關係國間에 적절한 措置를 취할 것을 1974年 3月 25日 北傀가 美國政府에 제의한 平和條約締結과 直結되는 外交戰略이라고 分析된다.

1975年 第30次 「유엔」總회에 제출된 共產側 決議案에서도

「유엔」軍司令部 解体와 外軍撤収 그리고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置하도록 실제 당사자들에게 촉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삼고 있다. 註11) 여기서 이야기 하는 실제당사자라 함은 北傀와 美國을 의미하는 것으로 北傀가 主張해 오고 있는 北傀-美國平和協定締結 提議 戰略과 연결시키고 있다.

北傀는 또한 非同盟會議를 활용하여 對南外交戰略을 이행하고 있다. 1973年 「알제리」에서 개최된 第4次 非同盟頂上會議에서 UNCURK解体 및 「유엔」軍撤収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1975年 「버마」非同盟外相會議에서도 韓國에 주둔하고 있는 「UN」旗下의 모든 外國軍隊의 철수와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置할 것을 最終文書中에 包含시켰다. 註12)

둘째로 北傀는 韓半島 紛爭에 대한 美國의 介入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① 韓半島에서 戰爭危險의 절박성을 나타내는 危機 및 긴장상황을 조작하며, ② 전통적인 韓北關係의 友好協力關係를 이간시키려 努力하며, ③ 韓國, 美國, 日本間의 여하한 三角協力體制-구축을 방해하는 전술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셋째로 韓國의 防衛體制 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北傀는 지속적으 ① UN軍司令部 해체를 요구해 오고 있으며, ② 休戰協定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③ 駐韓美軍撤収를 요구하고, ④ 韓美相互防衛條約폐기를 요구하고, ⑤ 兵力감축을 주장하고, 그리고 ⑥ 韓國이 韓半島平和와 安保維持를 위하여 제안해 오고 있는 南北韓 不可侵

協定締結과 当事国会議開催제의를 거부해 오고 있다.

北傀의 對南外交戰略을 政治外交의 側面에서 分析하면 먼저 戰略의 대상지역으로서 共產圈, 第3勢力圈, 그리고 西歐圈으로 三分할 수 있다.

對共產圈 상대로 北傀는 ① 여타 共產國家와의 유대를 持續하고 強化하며, ② 共產國家에 韓國의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의 效果가 미치지 못하도록 봉쇄하며, ③ 韓國의 北方外交의 침투를 저지하고, 그리고 ④ 中, 蘇紛爭을 활용하여 양국으로부터의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최대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第3勢力圈을 대상으로 北傀는 非同盟運動이 추구하는 反帝國主義, 反殖民主義 및 反美主義 運動을 지지하고 이에 편승하면서 第3世界에 적극 침투하고 그들과의 연대성을 강조하면서 第3勢力國家들을 北傀의 外交道具로 활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西歐諸國을 향하여 北傀는 ① 外交的 접근을 시도하고, ② 西歐로부터 先進技術과 자본을 도입하고, ③ 韓國과 西歐諸國間의 기존 友好協力關係를 단절시키려고 努力하며, ④ 韓國이 西歐圈에서 유지하고 있는 外交的 地位를 약화시키려 努力하고 있으며, ⑤ 韓國의 「유엔」加入저지와 國際機構에서 韓國代表權에 도전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北傀의 對南外交戰略의 당면한 兩大戰略目標은 첫째 軍事적으로 韓國의 軍事力과 防衛體制를 약화시키려는 目的이며, 둘째

政治外交的으로 北傀의 正統性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요약된다.

그렇기 때문에 北傀의 對美平和協定 체결 계의나 北傀의 對日接近政策도 이러한 北傀의 對南外交戰略의 軍事的 側面과 政治外交的 側面에서의 分析이 必要하다고 본다.

第2章 북괴의 對美接近政策 및 戰略

第1節 北傀의 對美平和協定 提議背景

北傀가 對美 平和協定締結을 공식으로 제의한 것은 1974년 3월 25日 北傀最高人民會議 第5期 3次會議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對美 平和協定提議 내용은 ① 상대방에 대한 不信任을 서약하고 직접적인 무력 충돌의 危險性을 제거하고, ② 南韓 武力增強과 南北 경쟁을 중지하고 外國으로부터 武器, 裝備, 軍需物資의 반입을 금지함과 동시에, ③ 駐韓外國軍은 「유엔」軍의 地位를 벗고 가장 빠른 기간내에 撤收할 것과, ④ 撤收後 南韓을 軍基地化를 금지하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으며,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상호무력 불확실성을 보증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註 13)

北傀가 1973年 3月 對美平和協定締結을 제의 하였으나 北傀가 美國과 처음 접촉을 표명한 것은 南北對話 이전으로 소급한다. 「니슨」美大統領 中共訪問 직후 1972年 5月에 北傀를 방문한 뉴욕타임즈記者 「슬즈베리」의 會見과 同年 6月 워싱턴·포스트紙記者 「해리슨」과의 會見에서 韓일성은 「美·中共, 美·北韓의 「네땅뜨」로 주한미군의 명분은 상실되었다」고 주장해서 駐韓美軍撤收를 조건으로한 對美通商 및 經濟關係를 수립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註 14)

그후 1973年 1月 월남문제 해결을 위한 美國-越盟간의 「파리」平和協定の 체결이 이루어 지고 난 다음 北傀의 對美接近戰略은 더욱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다. 同年 4月에 開催된 最高人民會議 第5期 2次會議에서 美國議會에 보내는 便紙를 채택하였다. 여기서 北傀는 南北7·4共同聲明과 이에 따른 南北調節委員會가 김일성이 제창한 自主, 平和統一, 및 民族的 大團結의 三大原則에 의하여 성립되었으나 南韓에 美軍이 상금도 주둔하고 있고 韓國의 現代化計劃을 돕고있기 때문에 南北對話가 단절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南北韓間에 韓半島問題 해결을 도모할 것이니 駐韓美軍의 撤収를 要求하고 있다. 註15)

또한 第5期 2次會議에서 행한 金一成的 報告는 「이제까지 싸우던 越南에서도 平和協定이 締結되고 美軍이 撤収하는데 停戰협정이 締結된지 20年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平和協定을 맺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南韓에서 美軍을 내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註16)

1973年 4月 最高人民會議 第5期 2次會議 結果에서 분석될수 있는 것은 駐韓美軍을 撤収시키기 위하여 越南解結方式 유형을 원용하려는 北傀의 움직임이 엿볼수 있다.

1974年 3月 25日 上記한 바와 같이 北傀는 美國政府에게 平和協定締結을 제의 하였다. 이 시점에 있어서 北傀戰略의 중요한

전환을 감지할 수 있다. 1973年 4月 最高人民會議 第5期 2次會議 결의내용을 美国 議會에 전달한 反面, 1年後 1974年 3月 第5期 3次會議 결의에 의한 对美協定締結제의를 정식으로 美国政府에 전달했다는 사실이다. 이점에 있어서 종래 美国民과 美議會를 상대로 전개 했던 소위 人民外交方式 戰略은 1974년부터 정부와 국가수준에 있어서의 정부간 外交형식으로 전환했음을 알 수 있다.

1974年 3月 北傀의 对美平和協定締結제안은 同年 9월에 開最된 第29次 「유엔」總회의 北傀戰略으로 연결되었다. 北傀의 对美平和協定 4個主要内容은 駐「유엔」北傀代表部 大使인 권민준이 배포한 「메모란둠」(1974. 10. 7)과 北傀外相 許鱗과 北傀代表 이종목의 연설의 主要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註17)

同時에 第29次 「유엔」總회에 제출한 共産側 決議案 実行部分 第2項에 「直接当事國으로 하여금 南韓으로부터 「유엔」기치하에 있는 모든 外國軍을 철수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하도록 권고한 내용은 바로 北傀가 美国에 제의한 平和協定과 직결 되는 것으로서 「直接当事國」으로서 北傀와 美国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註18)

1975年 봄 越南共産化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北傀의 对美平和協定締結 제안은 더욱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同年 5月 김일성

은 中共訪問에 이어서 東歐, 「아프리카」訪問外交를 전개하였고 그가 巡訪한 國家의 지도자들에게 北傀—美國間의 協商을 建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된 바도 있다. 註 19)

訪問外交로부터 귀국한 金日成은 同年 7월에 日本 自民黨 「우쓰노미야」議員과 면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金日成은 평등호혜적 조건하에서 美國과 現實的인 會談을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가 있다. 註 20)

北傀는 로동신문社設을 통하여 「休戰協定에 서명하지 않고 同協定을 反對하였든 韓國을 協定の 効力維持를 위한 會議에 참가시키는 것을 不當하다」 註 21) 고 주장하면서 北傀—美國間의 平和協定締結을 繼續 주장하였다.

1975年 10月 北傀 로동당창건 30주년 기념연설 속에서 金日成은 거듭 北傀—美國 平和協定締結을 촉구하면서 「平和協定이 체결되고 남한에서 美軍이 撤収한다음 北傀와 韓國사이의 軍事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主張한바 있다. 註 22)

北傀의 對美平和協定締結 戰略은 1975年 第30次 「유엔」總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北傀—美國間의 平和協定締結을 내용으로 담은 共産側 決議案이 韓國問題討議에 있어서 「유엔」總會 歷史上 처음으로 찬성 51, 반대 38로 政治委員會에서 통과되고

總會 本會議에서 찬성 54, 반대 43으로 통과 되었던 것이다.

北傀側 政策立場을 지지하고 있는 共產側 決議案은 43個 共同 提案國에 의해서 1975年 8月 8日 보충제외안건으로 「유엔」 事務局에 제출되었다. 註23) 本 決議案 內容은 제안설명요지에서 現 休戰狀態가 지속되고 外軍이 주둔하고 있는 한 韓半島에 항구적 평화는 기대할 수 없고, 韓半島의 항구적 평화수립을 위하여는 「유엔」 군사령부를 해체하고, 南韓으로부터 外軍은 철수되어야 하며, 平和協定이 滯結되고 南北韓 군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共產側 決議案 요지는 前文 6個項에서 韓半島分斷 30年과 休戰協定 成立 22年이 경과된 후에도 통일이 성취되지 못한 사실에 주목하고, 民族平等과 民族自決 및 國內問題에 대한 不干涉 原則을 상기하고, 自主, 平和統一, 民族的 大團結 原則에 입각하여 統一을 추구할 것과, 7·4 南北共同聲明과 第28次 「유엔」 總會 合意 聲明의 정신에 따라 南北會議의 繼續을 희망하고, 休戰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韓國問題 해결에 있어서 外勢의 干涉을 배제하고 韓半島緊張을 제거하며 武力衝突 防止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결의안 本文에서 ① 「유엔」 군사령부해체 및 外軍撤収와, ②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하도록 실질 당사자(real parties)들에게 촉구하고, 南北韓軍備增強을 금지하고 남북한간 동등수준으로의 감군과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相互 武力不使用을 보장할 것을 추구하였다. 註24)

共產側 決議案 本文인 実行部分에서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
置할 것과 平和協定の 당사자간에 합의할 내용으로 이에 北傀가
제의한 北傀—美国 平和協定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平和協定 実
質当事者로서 韓國을 除外하고 北傀와 美国을 지목하고 있음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第30次 「유엔」總회에 제의되고 통과된 共
産側 결의안은 바로 北傀의 对美平和協定 내용이며 本 決議案을
「유엔」總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國際的인 適法化 過程을 밟으려는
意圖로 판단된다.

北傀가 「유엔」外交를 통하여 对美平和協定締結戰略을 이행하려
했던 것은 1976年에도 계속되었다. 1976年 9月 北傀는 韓國
을 除外한 美国과의 단독 平和協定締結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第
31次 「유엔」總회에 제안하였다가 이를 다시 철회하면서 第30次
「유엔」總회에서 통과된 共產側 決議案의 조속한 이행, 즉 北傀—
美国平和協定締結을 추구했던 것이다.

北傀가 1976年 第31次 「유엔」總회에 이미 제출했던 共產側
決議案을 철회함으로써 「유엔」總회에서 韓國問題를 위임한 南北
韓 対決을 회피하면서 对美平和協定 추진에 있어서 美国政府와의
접촉 통로를 다양화 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화한 유형을 첫째
「파키스탄」의 「부토」大統領을 통하는 方式과, 둘째 在日朝總聯

組織을 활용하는 것과 세계 美國言論을 活用하고, 北側 在美親北 僑團體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요약된다.

北側은 1976年 9月 1次로 「파키스탄」의 「부토」大統領을 통하여 北側가 美國과의 交流를 제의하는 金日成의 편지를 美國 「카터」大統領後補에게 전달하고, 1977年 2月 同一한 내용으로 추측되는 金日成 書信을 同一한 經路를 통하여 새로 취임한 「카터」美大統領에게 전달 한바 있다.

1977年에 접어들면서 北側은 對美接近과 對美平和協定締結 추진에 있어서 朝總聯組織活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77年 3月 15日 朝總聯副議長 李季白은 東京駐在 美國特派員들과 가진 記者會見에서 美國과 접촉하고자 하는 北側의 용의를 전달하고 관계개선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李季白은 美國特派員들에게 美國은 韓半島政策을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전제하고 美國과 北側間에는 아직도 공식접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金日成은 韓國으로부터 美軍을 撤収시키겠다는 「카터」의 約束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李季白은 또한 「카터」大統領을 「正義의 사나이」라고 칭하면서 「우리는 美國과 對話하는데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는다. 美軍撤収를 선행시키라든지 하는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는다. 우리는 최종적인 平和조약의 체결, 美軍撤収, 그리고 양국

인민간의 관계개선을 包含하는 모든 현안을 토의할 것을 제안한다」
고 하였다. 註 25)

北傀는 또한 美国新聞에 광고 및 기고를 통하여 대미접촉의도와
대미평화협정체결의도를 강력히 美国与論에 부각시키려고 노력해 오
고 있다. 1977年 1月 12日字 그리고 同年 4月 6日과 15
日字 워싱턴·포스트紙, 그리고 4月 14日과 16日字 뉴욕·타임즈
紙에 각각 北傀의 对外政策을 선전하는 질문의 광고를 게재 하였
다. 註 26)

北傀는 또한 美国内 親北傀团体들을 활용하여 학술연구회와 같은
집회를 개최하여 親北傀人士들의 참여속에 北傀의 정책적 입장을
지지하는 發言이나 결의를 채택하게 하고 北傀와 美国과의 접촉 그
리고 공식적인 관계발전을 추진하기위한 여론을 선도하고 있으며,
美国行政府에 대하여 北傀-美国平和協定締結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北傀는 美国内에서 親北傀团体를 더 많이 구성하려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北傀의 对美政策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면서 北傀의 对美 言語 양상
도 현저히 변화됨을 볼 수 있다. 1977年 2月 北傀軍 創設 29
주년을 맞은 평양당국은 美国을 「美合衆国」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1977年 5月 9日 판문점에서 개최된 軍事停戰委員會에서 北傀代表
韓柱庚은 종래의 「美帝」대신 「美国」또는 「美軍」으로 표현을 바

꾸었다. 이러한 北傀의 對美發言에 있어서 언어 표현의 변화역시 美國에 접근하려는 北傀의 전술적 의도로 평가된다.

第2節 北傀의 對美平和協定締結 제의意圖

北傀의 對美平和協定締結 提議가 내포하고 있는 兩大基本戰略目標은 첫째 軍事的으로 韓國軍事力 및 防衛體制를 弱화시키려는 目標와, 둘째 政治外交的으로 北傀의 正統性 強化에 있다고 判斷된다. 즉 軍事的으로 韓國의 越南化戰略이며, 政治外交的으로 韓國의 台灣化戰略이라고 본다.

北傀는 軍事戰略의 구체적 目標로서 對美平和協定締結提議를 ① 駐韓美軍撤収를 早期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적과, ② 韓半島紛爭에 美國이 다시 介入할 수 없도록 저지하는 方法으로, 그리고 ③ 韓美間의 軍事協力이나 韓國軍 現代化 計劃에 있어서 美國의 협조를 저지하고 나아가 ④ 越南式 해결 방식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北傀의 政治外交戰略의 구체적 目標로서 對美平和協定締結提議를 ① 위장평화공세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美國 輿論 및 世界 輿論에 北傀의 平和愛好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며, ② 「유엔」總會戰略과 非同盟會議戰略에 연결하여 활용하며, ③ 韓國과 美國·日本과의 關係를 이간시키고 反對로 北傀와 美國·日本과의

접근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④ 韓國이 제의한 6·23宣言과 南北韓不可侵協定提議 및 韓半島 平和維持를 위한 当事国会談 개최 제의를 거부하고 대응하는 戰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⑤ 韓國을 除外하고 美國을 상대로 韓半島 平和安保에 대하여 韓國을 除外하고 直接 美國과 協商함으로써 韓國의 外交的 地位를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北傀의 정치외교적 정통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

前章에서 이미 分析한바와 같이 北傀의 基本對南政策目標은 韓半島赤化武力統一에 있으며 이러한 政策目的은 달성할 수 있는 方法으로서의 軍事戰略은 北傀軍의 上位的 軍事力 維持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軍事的인 赤化統一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 조성에 있어왔다.

北傀는 그들의 對南軍事行動의 실천시기와 조건을 바로 駐韓美軍의 철수가 이행된 상태, 美國의 再介入이 不可能한 상황, 그리고 韓美軍事協力體制가 와해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상의 상태로 發展시키는 최상의 방법으로 對美平和協定締結을 제의하고 나오는 것이다.

北傀가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으로 對美協定締結을 주장하고 世界 輿論에 平和愛好의 인상을 부각시키는 戰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現在 「카터」行政府의 탄생과 더불어 駐韓美地上軍의

撤収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 韓國軍 戰鬪力增強을 위한 군장비 현대화계획, 美國의 支援, 그리고 防衛産業育成등 韓國軍 전투력 강화의 인상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반면 北傀는 對美平和協定締結提議를 통하여 外交적으로 오히려 平和愛好的의 인상을 더욱 부각시킬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韓國은 커다란 外交的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며 北傀의 平和愛好的의 인상은 그들 外交의 資産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韓國統一이 요원한 가운데 국제무대에서의 南北韓 外交競爭은 불가피하게 지속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매년 개최되는 非同盟頂上會談,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非同盟外相會議에서 北傀는 韓國을 外交적으로 孤立化시키고 北傀의 外交的 地位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통성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계속 對美平和協定締結을 주장하면서 韓國을 除外시키고 北傀와 美國間의 協商을 주장할 것으로 본다. 즉 앞으로 계속될 「유엔」外交와 非同盟外交에서 北傀는 對美平和協定을 활용할 것으로 본다.

北傀의 對美平和協定締結提議는 韓國이 그간에 主張해 온 6.23 宣言과 南北韓不可侵協定締結, 그리고 當事國會談開催를 봉쇄하는 대응戰略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1972年 7.4 南北共同聲明 發表以來 7.4 共同聲明의 實行原則으로 1973年 6月 23日 같은날에 韓國은 6.23 平和統一外交政策 宣言^{註 27)} 그리고 北傀는 金日成 5대강령^{註 28)} 을 선포했던 것이다.

그후 1973年 8月 28日 北傀 김영주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교착된 南北會談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韓國側 提案이 1974年 1月 18日 大統領 年頭記者會見에서 南北韓 不可侵協定締結 提案이 나오고 北傀側은 同年 3月 25日 對美平和協定締結 提議를 했던 것이다. 그후 1975年 9月 韓國과 美國政府는 韓半島問題 해결을 위한 當事國會談 개최를 제외했던 것이다.

이렇게 1973年 이후 韓國側 主張의 6·23 原則, 不可侵協定締結 및 當事國會談 주장에 대해서 北傀는 對美平和協定締結提議로 맞서 왔던 것이다.

第3節 美國의 反應 및 問題點

1974年 3月 25日 北傀가 對美平和協定締結을 提議한 이래 美國의 公式政策立場은 第29次 「유엔」總會에 提出할 西方側 決議案이 표면화 되면서 윤곽이 밝혀졌다. 즉 美國은 「유엔」軍司令部 해체를 包含하여 韓半島 休戰協定體制를 제조정하는 문제는 「유엔」安全保障理事會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美國과 北傀와의 關係에서 협상,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韓國問題 해결은 強大國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 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美國의 立場은 1973年 第28次 「유엔」總會時에 韓

半島問題에 대한 「키신저」國務長官의 발언 내용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即 「키신저」長官은 韓半島問題에 대하여 「安保理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한 관계국들간의 조용한 협의」를 主張했던 것이다. 註 29) 동시에 駐韓美軍撤収問題는 美國과 韓國과의 問題로 駐韓美軍은 1954年에 發効된 韓美相好防衛條約에 의하여 韓國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駐韓美軍의 地位變動에 대한 問題는 主權國家인 美國과 韓國과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유엔」總회에서 論議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더구나 美國과 北傀間에 협의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명백히 했던 것이다.

이러한 美國立場이 包含된 西方側 決議案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4年 第29次 「유엔」總회에서 통과되었고 共產側 決議案은 부결되었던 것이다. 즉 總회를 통과한 西方側 決議案 주요내용은 「유엔」軍司令部解体를 包含한 「유엔」軍司令部장래問題와 韓半島 平和安保를 유지하기 위한 代案措置를 관련국가간에 협의를 통하여 安保理에서 강구하도록 總회가 希圖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註 30)

第29次 「유엔」總회 西方側 決議案은 그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1975年 第30次 「유엔」總회를 마지하게 되었으며 北傀의 對美平和協定締結 제의에 대한 政策的 対応이 美國政府에 의해서 「유엔」安保理 議長에 보낸 1975年 6月 27日字 공한에

나타났다. 즉 「유엔」軍司令部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後繼調整이 이루어지면 1976年 1月 1日부로 「유엔」軍司令部를 해체할 것이며 이에 관련된 問題들을 北傀와 安保理 常任理事國들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던 것이다.

同時에 同日字로 「유엔」事務處에 제출된 西方側 決議案 実行部分에 休戰協定の 계속유지를 위한 代案措置를 강구하면서 「유엔」軍司令部를 해체하는 問題를 直接 当事者間에 협상할 것을 安保理가 권장해 줄 것을 希望하는 내용을 삼입했던 것이다. 註31)

1975年 6月 27日字 美國政府가 「유엔」安保理 議長에게 보낸 공한에서 제의한 내용과 同日字로 「유엔」事務處에 제출된 西方側 決議案 초안 내용은 1975年 9月 22日 「유엔」總會 개최벽두에 가진 「키신저」長官 정책연설에서 더욱 선명히 나타났다. 즉 「키신저」長官은 韓半島平和에 대한 구상으로서 休戰協定보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상을 위하여 休戰協定 当事者會談으로서 南北韓과 美國과 中共을 포함한 4個当事國會談을 개최할것을 제의 하였다. 동시에 「키신저」長官은 이 제의에서 韓半島에서의 긴장감소를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다른 정책의 모색을 위한 협상으로 4個当事國會談의 확대 가능성을 표시 하였다. 註32)

韓國問題에 대한 第30次 「유엔」總會의 결과는 西方側과 共產

例 決議案의 공동통과라는 이면을 낳았으나 그후 어느 決議案도 실제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北傀는 계속 对美平和協定締結을 주장해 왔고 이에 対応하여 美国은 4個当事国会談 開催를 主張해 왔던 것이다.

当事国会談開催를 재차 주장하는 정책 연설이 1976年 7月 22일 「키신저」長官에 의해 이루어 졌다. 美国 「씨아틀」에서 연설하는 기회에 「키신저」長官은 南北韓과 美国・中共을 包含하는 当事国会談을 開催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当事国会談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 장소로서 「뉴욕」과 예비회담 개최시기로서 第31次 「유엔」總會期間을 제와하고 나섰다. 註33)

1976年 第31次 「유엔」總會는 韓國問題를 다루지 않았다. 共產側은 이미 제출된 그들의 決議案을 철회하고 뒤이어 西方側도 그들의 決議案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背景下에 「키신저」長官은 다시 同年 9月 30日 「유엔」總會의 정책연설에서 韓半島問題 해결을 위한 当事国会談開催를 다시 촉구하면서 3段階로 구체화된 단계적 협상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註34)

이와같이 「포드」行政府期間 美国의 对北傀態度는 北傀提案의 北傀—美国平和協定締結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政策的 对案으로서 当事国会談 開催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77年 1月 「카터」行政府의 탄생과 더불어 美国의

對北傀態度에는 현저한 變化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政策的 側面에서는 종래의 태도와 같이 北傀主張의 美國-北傀平和協定締結을 反對하고 南北韓을 包含한 當事國會談開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드」行政府의 태도와 상이한 점은 北傀와의 關係개선을 위한 制반조치를 美國이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음은 물론 第3國을 통하여 美國과 北傀가 서로 접촉하는 일련의 사태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사태는 1976年 9月과 1977年 2月 兩次에 걸쳐 北傀 金日成은 「파키스탄」의 「부토」대통령을 통해 美國政府에 접근을 모색하는 편지를 전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美國은 양차에 걸쳐 同一通路를 經유하여 北傀의 金日成에게 「韓國의 참여 없이 北傀와 접촉을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회답을 전달했다는 사실이다. 美國이 北傀에 보낸 서신내용이 종래 美國側 立場을 견지하는 內容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節次와 回答形式에 있어서 平壤과 「와싱턴」간의 政府水準의 公式서한의 교환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태는 「카터」美大統領의 취임 직전에 의회지도자들과 갖은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진보파 의원들이 美國의 새로운 韓半島政策 일환으로 北傀와의 關係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하바드」大學校 「제롬·코헨」교수를 비롯한 일부 진보파

지식인들이 신문지상을 통하여 北傀와의 관계개선을 촉구하는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배경으로하여 「카터」大統領은 취임직후 농구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美國과의 非修交國家들과의 관계개선정책을 추구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세째사태는 지난 1977年 3月 10日에 있었던 記者會見에서 「카터」大統領은 北傀를 포함한 「쿠바」, 「베트남」등에 대한 美國人의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네째사태는 1977年 3月 17日에 행한 「유엔」연설에서 「카터」大統領은 「東南亞와 太平洋地域에서 우리는 전통적 우방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며 過去의 적대국가들과는 南係改善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카터」大統領의 연설이 있던 3月 17日 「리셉션」에 형식은 「발트하임」유엔사무총장의 이름으로된 것이기는 하지만 美國은 北傀代表를 초청하는 異例的인 措置를 취하였다.

지난 3月 15日 國務省의 日日 「브리핑」에서 「브라운」國務省 대변인은 「過去의 적대국가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中共이나 「베트남」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北傀가 포함되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그는 기록에남는 정세보고가 끝난뒤 재차 질문한 기자에게 「北傀가 포함된다는 것이 나의 見解」라고 답변하였다. 註35)

1977年 1月 「카터」行政府의 탄생과 더불어 駐韓美地上軍 撤收原則이 확정되고 철수를 위한 협상이 韓國과 美國間에 進 行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北傀가 적극적으로 對美接近을 시도하고 동시에 美國 역시 종래 對北傀 태도의 變化를 보이면서 金日成 의 서한에 회답을 보내고, 北傀地域 여행제한을 철폐하고 아시아 地域에서 종래 美國의 적대국가들과 南係改善을 하려는 의도속에 北傀가 包含되어 있다는 사실들은 韓国外交에 있어서 커다란 問題를 제기해 주고 있다.

첫째 問題점은 北傀가 韓半島問題 해결을 越南問題 해결 방식화 하려는 戰略의 심각성이다. 共產越盟은 월남을 상대하지 않고 직접 美國과 平和協商을 추진하여 1973年 1月 이른바 美國 - 越盟間 「파리」平和協定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이로서 越盟의 국 제적 지위는 강화되고 「파리」平和協定에 따라 주월미군의 철수가 이행되고 이에 따라 월남의 民心은 동요되고 政局의 혼비한 상태 를 유발하게 되고 드디어 越南의 赤化가 實現되었던 것이다.

둘째 問題점은 美國이 北傀를 包含한 公산국가에 대하여 종래 취해 왔던 美國人들의 여행제한을 해제한데 이어 4月 14日 美國 永住權을 소자하고 있는 外國人들의 共產圈訪問制限을 해제키

로한 美國政府의 조치는 앞으로 美國과 北傀間에 人的交流의 양이 증대될 것은 물론 美國永住權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 교포들의 가족 및 친지 방문이나 무역등 경제적 이유로써 北傀訪問 및 여행의 機會가 많아질 문제점이 있다.

韓國은 1973年 6·23 平和統一外交政策선언이후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주장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韓國과 共產圈國家와의 人的交流는 거의 부재상태에 놓여있다. 1973年에도 韓國政府는 西海大陸棚管轄權과 관련하여 中共當局에 제 협상을 제의하였고 最近에는 「감차카」海域의 北洋漁業問題로 第3國을 통해 蘇聯과의 접촉을 추진하고 있으나 中共과 蘇聯은 계속 韓國측 제안과 접근을 묵살하고 있다. 韓國과 共產國家間의 人的交流의 부재상태에서 北傀와 美國間의 人的交流가 일방적으로 증가된다면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韓國外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본다.

美國은 전통적으로 韓國과 가장밀접한 同盟友邦國家이며 美國에 거주하는 한국교포의 수도 日本다음으로 많은 30여만명이나 된다. 그동안 美州地域 거주 한국교포들은 北傀의 중요한 공작 대상이 되어왔고 특히 1973年 「뉴욕」 유엔본부에 北傀의 상주 대표부가 설치된 것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方法으로 포섭

침투하고 있으며 最近에도 美國内 좌익 美國人들을 앞세워 각종 親北傀團體를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反韓宣傳과 駐韓美軍撤収와 對美平和協定締結등 北傀의 政治的 立場을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73年 「金大中 事件」발생이후 在美僑胞社会一角에서 反韓國政府 活動이 활발해 지면서 美國 要路에 對韓援助中斷과 駐韓美軍撤収를 韓國政府에 대한 壓力手段으로 사용하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전개하자 北傀는 이러한 僑胞社会의 反韓運動에 편승하여 漁夫之利를 추구하고 있다.

第3章 북괴의 對日本接近政策 및 戰略

第1節 北傀—日本關係

北傀와 日本과의 關係는 2次世界大戰終了以後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으나 1965年 韓日基本條約 締結以後 北傀—日本間의 접촉은 상당히 制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北傀—日本關係도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점차 活性化되기 시작하고 北傀의 對日接近政策과 야합하여 兩國間의 關係 밀접화—과정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60年代 北傀—日本間의 人的交流에 있어서 日本의 경우 北傀旅行은 극도로 制限되어 있었고, 주로 소수의 日本国会議員에 대한 여행許可와 北傀의 경우 非政治的 國際競技를 위한 선수 및 임원단의 日本入国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日本政府는 1971年 7月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이 發表된 이후부터 韓半島政策의 變化징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韓日基本條約에 입각하여 韓國을 韓半島의 유일합법정부로 규정하고 상대했던 日本政府는 美—中共關係의 變化와 함께 日本의 서울과 平壤에 대한 政策再調整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日本은 1972年 2月 民間水準의 무역협정을 締結하고 朝日貿易
회가 東京에 位置하여 비공식적인 무역대표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동시에 北傀—日本間의 貿易量도 급격히 증가하여 1972年 전체무
역량은 131백만 美弗로서 北傀는 日本에게 38백만 美弗을 수출
하고 日本으로부터 93백만 美弗을 수입하였다. 36)

동시에 1971年 이후부터 日本은 北傀에 대한 人的交流政策을 대
폭 수정하여 日本人의 北傀訪問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1972
年부터는 北傀로부터 예술사절단, 경제사절단 및 학술대표단등의 대
량 日本入國을 허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日本은 朝總聯系 在日
同胞들의 北傀訪問을 허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총련의 政治活動까
지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日本의 對北傀接近政策에 고무된 北傀는 日本의 좌경인사
의 北傀초청과 日本內에 北傀支持勢力 부식에 노력하게 되었다.
예컨대 좌경세력의 대표자인 「미노베」 동경도지사, 아사히新聞의
「고토」 편집국장 「세계」誌의 편집인 「야쓰에로스끼」, 그리고 日
朝貿易會 간부들을 평양에 초청하였다. 北傀는 또한 大型貿易使節
團을 日本에 파견하여 政府宣傳에 종사케 하는등 日本 침투를 적
극화 하게 되었다. 37)

貿易面에 있어서도 1971年 131백만 美弗이던 것이 1974年
에는 300백만 美弗이 되고 北傀開懇地에 출입한 日本선박수도 270

여척에 달하고 北傀 역시 「만경호」와 같은 정치공작선이 무역을 가장하여 日本港口에 수시로 入港했던 것이다.

더구나 日本政府는 國會議員들로 구성된 「日朝友好貿易促進委員聯盟」이란 창구를 통하여 1973年 1月 北傀와 무역촉진에 관한 合意書를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準政府 水準의 접촉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同年 4월에 각 재벌급 무역회사로 구성된 대형무역사절단을 北傀에 파견하였다. 北傀는 동년 7월부터 1개월간 무려 220명으로 구성된 소위 「만수대 예술단」이란 정치선전공작대를 日本各地로 방문공연케 하여 朝總聯組織을 강화하고 日本社會에 親北傀感情을 배양했던 것이다. 38)

北傀 역시 對日本政策에 있어서 友好的이며 親日的인 政策으로 급선회하여 日本의 對美國一刃途政策을 抑制하고 日本과의 資本技術協力으로 北傀經濟 復興을 이룩하려는 뚜렷한 조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北傀 副首相 朴成哲은 「日本의 對韓半島 등거리외교 정책은 한번도 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發表하고 심지어 1965年 締結된 韓日基本條約의 폐기없이도 日本과 北傀와의 外交正常化는 가능하다고 까지 이야기 하였다. 39)

北傀-日本間의 關係發展은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1971年 이후에 표면화 된것 같은 인상이 짙으나 사실에 있어서 日本의 對北傀政策은 1950年代 後半期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日本의 大陸政策

의 틀속에서 자리를 잡아 발전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50年代 後半에서 日本은 美国의 대극동정책에 순응하면서도 日本 나름대로 大陸政策을 서서히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먼저 日本은 소련과 국교樹立을 타개하고 中共과 北傀와의 交易을 서서히 진행시키면서 정치적 교류를 서두르기 시작하였다.^{註40)}

또한 1960年代부터 日本은 中共과의 經濟協力關係를 擴大하면서 종래 友好貿易이란 中小企業들을 中心으로한 민간수준의 무역으로부터 覺書貿易이란 재벌중심의 準政府水準貿易으로 확대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日本의 大陸政策은 소위 政經分離政策으로 호도되어 왔으나 사실상 경제교류의 확대증가는 실질적으로 日本外交政策의 수정을 不可避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外交政策의 수정은 日本国内에 있어서 좌경세력에 대한 미온적이며 유화적인 자세를 취할수 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사실상 日本 共産黨 및 社会黨 左派 활동이 활발할 수 있었고 좌경학생 운동이 방치상태에 있었던 이유와 조총련과 같은 좌경 외국인 정치단체가 공공연히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 日本政府는 이와같은 좌경세력을 大陸進出을 위한 外交道具로 삼았고 이들을 이용하여 大陸共産國家에 대한 外交창구로 활용했던 것이다.

日本의 对北傀政策은 이와같은 日本의 大陸政策의 기조와 틀속에서 설정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日本은 1959年 日本

科学技術協力委員会の 発足を 허용했고 동년 9月부터 中共經由 무역거래를 시작했던 것이다. 1961年 4月부터 北傀는 직접적인 貿易去來를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1959年부터는 人道主義란 美名아래 日本赤十字社를 앞세워 在日韓國僑胞들을 北送시켜 왔던 것이다.

日本政府는 日本과 中共間의 外交正常화가 이루어지고난 1972年 이후부터는 더욱더 北傀와의 關係를 擴大해 나가고 있다.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1972年 日朝友好貿易促進議員聯盟을 發足시키고 北傀와의 무역촉진에 관한 合意書를 체결하고 1972年 7·4 南北 共同聲明 發表를 계기로 日本政府는 두개의 韓國과 南北韓 等距離 外交개념을 擴大해 나가게 되었다.

北傀의 日本에 대한 接近政策 역시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옳다고 본다. 北傀의 對日接近動機는 時期와 條件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北傀는 日本에서 접근을 통하여 朝總聯組織을 은존시키고 확대증강시켜 北傀外交의 도구로 활용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北傀는 朝總聯을 기반으로 日本國內의 좌경세력에 침투하여 北傀支持勢力을 구축하고 동시에 韓國에 대한 침투공작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둘째 北僞의 對日接近 目的은 日本의 資本과 技術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이다. 北僞는 地理적으로 有利한 日本과의 交易關係를 擴大시킴으로써 日本의 先進技術과 資本을 도입하여 그들의 落後된 北僞經濟를 발전시키려는 目的인 것이다. 특히 中蘇紛爭이후 中共과 蘇聯의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北僞의 位置定立이 힘들게 되고 따라서 中·蘇에 대한 經濟的 의존이 어렵게 됨에 따라 더욱 日本에 접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北僞는 中·蘇로부터의 經濟援助의 한계를 느낄수 있는 더욱 日本과의 經濟協力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세째, 北僞는 日本에 대한 접근정책을 통하여 韓日間의 關係를 저해시키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北僞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北僞는 韓國問題에 대한 日本의 태도를 中立化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1965年 韓日基本條約 締結以後 北僞는 韓日條約을 폐기할 것을 包含하여 韓日關係를 전면적으로 否定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1971年 이후 태도를 변화하여 北僞-日本間의 國交樹立을 主張하나 韓日基本條約 폐기가 國交樹立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특히 1972年 以後부터 北僞는 日本이 등거리정책을 취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北僞는 「유엔」에서 韓國問題 討의시 日本이 기권 혹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 줄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第2節 最近 北傀—日本關係의 問題點

韓日大陸棚協定 비준問題로 韓日關係가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더욱 미묘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北傀 最高人民會議 代表團의 日本入國이었다.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의 초청으로 訪日하는 北傀代表團은 5月初 日本政府의 허가를 얻어 5月 11日 前駐中共北傀大使였으며 現 北傀 對外連絡協會 副委員長인 玄峻極을 단장으로 한 代表團 일행 7명이 日本에 도착하였다.

이번 玄峻極을 단장으로하는 北傀代表團의 日本訪問은 주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전에도 日本—北傀간에 民間水準의 비공식 人的交流는 있어 왔으나 이번처럼 北傀의 最高人民會議를 대표한 公式訪問은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40)

금번 北傀代表團의 訪問目的은 처음부터 友好訪問이며 民間貿易協定 및 民間漁業協定の 해결교섭을 표면상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日本 체제기간도 11일부터 19日까지 9日間으로 명시되어 있다.

日本政府는 이번 北傀代表團의 入國目的이 日本—北傀간의 통상·무역 및 어업문제를 처리하는데 있다고 非政治的 訪問目的을 강조하고 있으나 방문이 함유하고 있는 몇가지 政治的 성격을 分析해 낼 수 있다.

첫째, 日本政府가 駐韓美地上軍撤収가 계획 이행되는 단계에 있어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南北政治를 촉진시키기 위한 분위

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日本이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解析은 지난 4月 21日 参의원 외교위원회에서 「하도야마」日本外相이 「南北統一을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무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사실과 연결된다고 본다.

둘째, 日本政府의 北傀代表團 入國許可措置는 参의원 선거를 앞두고 득표戰略의 일환이라는 分析이 있을 수 있다.

次期 参의원 선거에서 自民党이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은 상황 속에서 「후쿠다」首相은 극적으로 유권자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外交問題가 필요하며 이러한 外交問題로 北傀最高人民會議代表團의 日本入國을 선택했다고 보겠다. 「후쿠다」首相은 北傀代表團의 訪日을 승인함으로써 日本에 있는 親北傀勢力의 지지를 자민당쪽으로 집결시킬 수 있으리라는 계산으로 分析된다.

셋째, 日本政府는 日本이 시급히 필요한 것도 아닌 貿易協定 改正問題등을 명목으로 北傀代表團을 日本에 入國시킨 것은 大陸棚問題를 위요하여 韓國이 韓日漁業協정 협정 무효화, 경제수역 200해리 선포, 12해리 영해선포, 및 7광구 단독개발등 일련의 対日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北傀代表團 日本入國을 활용하려는 의도로도 分析되어 질수 있다.

네째, 日本은 1975年 9月の 「쇼오세이 마루」事件이후로 西日

本漁民들로부터 安全한 조업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要求를 받아 왔고, 최근 日本政府는 소련과의 어업협정 締結 交渉이 난항하고 있는 차제에 北傀와의 어업협정 체결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分析된다.

北傀側으로서 代表團 日本訪問의 公式目的은 1976年末로 期間이 끝난 日朝民間貿易協定の 改正協定에 加入하는 한편 民間漁業協定을 협의하는 非政治的인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北傀代表團 構成員의 성분으로 보나 그들을 초청한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의 성격으로 보나 實際訪問目的에 있어서는 政治的임을 알 수 있다.

이번 北傀代表團 訪日目的이 政治的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日本到着이후의 활동으로부터 명백해 졌다. 北傀代表團 團長인 玄峻極은 「하네다」空港에 도착하자마자 「카터」美大統領의 駐韓美軍撤収約束을 지켜보겠다는 등 政治的 發言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42) 동시에 日本政府에 대하여 主한미군철수에 反對하지 말 것과 韓國政府를 뒷받침 하거나 두개의 韓國을 도모하는 움직임을 조장하지 말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43)

玄峻極은 또한 5月 13日 日本共同通信社와 갖인 기자회견에서 北傀는 美國의 駐韓美地上軍 撤収計劃을 환영하며 韓半島統一에 관하여 韓國政府와 會談을 시작할 용의가 있다고 發言하고 美軍撤収가 時日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날카로운 관심을 가지고

이 미국조치를 주시하겠다」고 共同通信은 보도하고 있다. 44)

玄은 같은 날 제국 호텔에서 갖인 毎日新聞과 가진 단독 會見에서 「大陸棚協定 비준의 움직임은 조선통일을 방해한다. 이같은 문제는 통일된 조선과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日本國會의 大陸棚협정 심의 자체에 제동을 걸려고 의도하였다. 45)

北僑代表團은 방문기간중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과의 협의를 통하여 日朝貿易促進과 어업의 안전조업에 대한 기본합의에 到達하였다.

民間貿易協定の 주요내용은 ① 1976年末에 기한이 끝난 貿易協定을 1982年까지 5년 연장하고, ② 5年間 雙務貿易目標 總額을 12億 美弗로 하고, ③ 貿易代表部를 東京과 平壤에 각각 두게 하며, ④ 技術者 交流등을 위한 상설기관으로서 전문가 회의를 두며, ⑤ 貿易대금의 未払等 紛争을 처리하기 위해 民間水準의 紛争處理委員會를 두는것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第3項의 貿易代表部 설치는 名称(貿易代表部, 通商代表部, 或은 貿易事務所)의 확정, 人員의 規模, 및 開設時期는 雙方政府의 承認을 얻어 合意하기로 하였다. 46)

北僑代表團이 5月 15日 「오오사카」訪問時 가진 면담에서 黒田「오오사카」府知事は 「통일을 위해 北僑가 추진하고 있는 활동을 지지하며 하루라도 빨리 자유롭고 평화로운 민주사회를 실현을 본다」라는 환영사를 함으로써 北僑政策支持發言을 한 사실이 보도

되고 47) 그 다음날 日本의 鳩山威一郎 外相은 日本記者클럽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日本은 「다른 一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적진적」인 방법으로 北僞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은 48) 北僞代表團의 日本訪問과 연관이어서 주목할만한 發言으로 분석된다.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과 北僞代表團은 民間貿易 및 漁業協定을 조 기 체결 한다는 基本原則에만 합의하고 종료하였다. 北僞와 日本兩側은 이번 會談에서 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인들을 비롯한 각계인사교류촉진, ②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 日本側 代表團의 조 기 北僞訪問, ③ 민간무역 및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계속 협의등에 합의 하였다. 49)

금번 北僞代表團의 訪日期間中 民間무역협정 및 어업협정 체결에 실패한 이유는 협정문서 작성에 있어서 北僞側이 南北韓統一問題등 정치조항을 插入할 것과 貿易代表部의 설치와 협정 체결에 앞서 먼저 日本政府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 때문이다. 50)

兩側은 구체적인 협의를 평양에서 계속하기로 연기하는데 합의 하였고 日朝議員의 日本側代表團의 北僞訪問時期는 參의원 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이상의 北僞代表의 활동과 日本反應을 종합분석해 볼때 北僞代

表團 日本入國의 政治的 目的은 ① 駐韓美軍撤収 추진과 美軍撤収
에 反對하는 日本與論무마와, ② 韓日大陸棚 共同開發 協定비준 反對
및 지연과, ③ 韓日關係 이간, ④ 北傀-日本의 友好關係 증진과,
⑤ 韓國-日本의 一元的 正常國交를 北傀-日本의 二元的 國交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요약 될 수 있다. 즉 北傀는 日本으로 하
여금 사실상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실행케 함으로써 北傀의 對日關
係에서 韓國과 1對1의 비등까지 높이자는 의도이며 駐韓美軍撤収
와 大陸棚비준방지 등 韓國에 대한 政治外交的 공세를 취하려함이
最近 北傀가 日本에 接近하고 있는 戰略的 動機로 分析된다.

(註)

註1. 北僞 로동당규약 참조

註2. Dalchoong Kim. "Interdependence Between a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South-North Rel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German Conference on World peace promotion Through Intrasystem Detente in Germany and Korea- a Comparative Evaluation, Munich, west Germany, June 16-20, 1975, PP. 4 - 8

註3. 1954年 4月 「제네바」會談에서 北僞代表 南日이 제시한 統一方案의 主要內容은 (1) 南北韓 統一政府 수립을 위하여 統一政府 형성을 위한 南北韓 總選舉를 中立國 감시하에 실시하고, (2) 總選準備와 南北韓 經濟 및 文化接近에 대한 措置를 취하기 위하여 北僞의 最高人民會議과 韓國의 國會에서 各各 選출된 代表로서 「全朝鮮委員會」를 組織하고, (3) 6個月內에 一切의 外國軍을 撤收시킬 것과, (4) 極東에서의 平和維持에 관심을 가진 해당국가들은 韓國統一의 급속한 해결에 도움을 줄 조건들을 組成하여 주는데 대한 必要性을 認定할 것 등이다.

北僞對表 南日의 提案의 상세한 內容은, 外務部 外交研究院,

韓國外交의 二十年, 外交研究院, 1967, pp. 422-423 참조

註 4. 이러한 北僞의 새로운 政策 및 戰略의 추진은 韓國內에서 부분적인 反應을 야기 시켰다. 즉, 韓國內에서 「中立化 統一論」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韓國의 民主黨政府도 1960年 9月 24日 종래 「北進統一」政策을 포기한다는 것을 公式으로 천명하게 되었다. 李相禹, 南北會談 發言主題變遷에 나타난 北韓의 協商戰略, 國土統一院, 1975. pp. 10-11

註 5. 로동신문, 1962. 12. 16 및 17

註 6. 「닉슨」行政府의 탄생과 더불어 美·中共接近 움직임이 태동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1971年 7月 15日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이 공식 발표되면서 美·中共화해 「루드」는 더욱 확대 되었다.

註 7. 北僞는 누적된 외채상환문제와 과다한 軍費支出에 의하여 심각한 經濟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北僞의 經濟事情은 1972年 5月 뉴욕·타임즈記者 「해리슨·소리스버리」 및 「존·리」와의 기자회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北僞는 南北韓 關係를 호전시키고 韓半島緊張緩和를 기함으로써 北僞經濟를 만회해 보겠다는 결실한 필요에 당면해 있었으리라 추측 된다.

註 8. 韓國政府에 의한 對北僞 대화모색의 움직임은 1970年 8月 15日 第 25周年 光復節에서 밝힌 朴正熙大統領의 제의로서 표면화 되었다.

朴大統領은 平和統一의 기반조성을 위한 南北韓 접근방법으로

① 北僞는 武力赤化統一이나 暴力革命에 의한 韓國政府 전복 음모를 内外에 포기선언하고 행동으로 실증할 것과, ② 韓國은 北僞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의 韓國問題 토의에 北僞參席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점과 ③ 南北韓間의 「善意的 競争」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韓國政府의 南北緊張緩和의 주도적 제안은 다시 1971年 8月 12日 南北離散家族 再結合을 위한 南北赤十字會談 제의로 연결되었다.

註9. 北僞·蘇聯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은 1961年 7月 6日 調印되어 同年 9月 10日 發効되었으며, 北僞·中共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은 7月 11日 調印되어 同年 9月 10日 發効되었다.

上記 두 條約文, 韓培浩, 李相禹, 崔相龍 著, 韓國·美國·日本—韓國安保의 環境과 課題, 亜細亞政策研究院, 亞政研究叢書 第1輯, 1977. pp. 247-250 參照

註10. 第28次 UN總회에 제출된 共產側 決議案,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Question of Korea at the 28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73 참조

註11. 외무부 외교연구원, 제30차 유엔총회 韓國問題討議錄, 外交

研究院, 1975 참조

註 12. 北傀는 1970年 「잠비아」에서 開催된 第3次 非同盟頂上
會談에서도, 韓半島에서의 「유엔」군 撤収를 요구하는 결의
안을 채택한바 있고, 1972年 「가이아나」개최 非同盟 外
相會議에서도 外勢干涉의 中止와 「유엔」軍 철수를 요구하
는 決議案을 채택한 바 있다.

註 13. 로동신문, 1974. 3. 26

註 14. Washington Post, June 12, 1972

註 15. 朴奉植, 美北傀關係의 展望, 第3回統一論壇 主題發表 論文

1977. 5. 26. p. 3

註 16. 前掲書

註 17. 外務部, 外交研究院, 北傀의 對 유엔戰略 (1971-1975) 關係資料,

外交研究院, 1976 참조

註 18. 外交研究院, 南北韓 對 유엔戰略, 外交研究院, 1975. 참조

註 19. 世界週報, 1976年. 1 月号, p. 64

註 20. 読売新聞, 1975. 8. 17

註 21. 로동신문, 1975. 9. 26

註 22. 로동신문, 1975. 10. 10

註 23. 外務部, 外交研究院, 南北韓 對 유엔戰略, 참조

註 24. 前掲書

註 25. 朴奉植, 前掲書에서 再引用

註 26. Washington post, ganuary 12. 1977.

April 6, 1977, and April 15, 1977 :

the New York Times, April 14, and 16, 1977

註 27.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 7 個項, 国防大学院 安保問題研究所 資料編, 国防大学院, 1973, pp.600-602 참조

註 28. 金日成의 「평화 통일 5 대강령」은 1973 年 6 月 23 日

「체코슬로바키아」共産黨 및 政府代表團 (단장 ; 후사크黨書記)

환영 평양군중대회에서 金日成의 연설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① 南北韓間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및 긴장상태 제거

② 南北關係를 개선하고 國土統一을 촉진하기 위해 南北間

에 政治·軍事, 外交, 經濟, 文化의 各분야에 걸쳐 다방면

의 合作과 교류를 실현, ③ 統一問題는 인민의 의사와 요

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南北間의 광범위한 各계층

인민들과 各정당 사회단체등의 「大民族會議」를 소집,

④ 南과 北에 현존하는 두 制度는 당분간 그대로 두면서

南北 聯邦制를 실시하고 이경우 연방국가의 國号는 고려

연방공화국이라 하고, 그리고 ⑤ 南北韓 동시 「유엔」加入

反對이다.

註 29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Question of Korea
at the 28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73 참조

註 30 . 外務部 외교연구원, 제 29 차 유엔총회 韓國問題 토의록,
외교연구원, 1975 참조

註 31 . 外交研究院, 第 30 次 유엔총회 韓國問題 討議錄, 外交研究院
1975 참조

註 32 . 金達中, "休戰当事国会談 協商戰略", 統一政策, 2 卷, 3 号
(1976.10). pp.73-74 참조

註 33 . 前掲書

註 34 . 三階段 当事国会談 協商方法에 대하여, 前掲書 참조

註 35 . 朝鮮日報, 1977.3.20

註 36 . Sung Soon Cho, "North Korea's Relations with
Japan, " in young G . Kim ed. , Foreign policies
of Korea, p.126

註 37 . 李聖根, "日本의 对北傀姿勢와, 其 危險構造, " 政經研究,
116 号 (1974.9), p. 36 .

註 38 . 前掲書

註 39. Cho, "North Korea's Relations with Japan."

p. 126

註 40. 李聖根, 前掲書, p. 38

註 41. 1974年 日本政府는 東京에서 國際議員聯盟總會가 개최되
었을때 北傀代表團 入國을 허가한 적이 있으나 당시 北
傀代表의 入國目的은 日本의 公式訪問에 있었던 것이 아
니라 國際會議, 즉 國際議員聯盟總會에 참석을 허락해 준
것이다.

註 42. 中央日報, 1977.5.13

註 43. Ibid.

註 44. 朝鮮日報, 1977. 5.14

註 45. Ibid.

註 46. 東亞日報, 1977.5.16

註 47. Ibid

註 48. Ibid., 1977.5.17

註 49. 朝鮮日報, 1977. 5.20

註 50. 東亞日報, 1977.5.19